산업통상자원부	**보 도 자 료**	http://www.motie.go.kr

2018년 4월 5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4. 4.(수)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8. 4. 4. (수)	담당부서	투자유치과
담당과장	김재준 과장 (044-203-4080)	담 당 자	송상현 사무관(044-203-4086)

2018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 ‘18. 4. 4(수) 배포 -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동향 자료는 산업부의 외국인투자통계 및 외국인투자 연구센터·코트라(KOTRA)의 자료를 바탕으로 **2018년 1분기**(1.1 ~ 3.31) 외국인직접투자를 분석한 자료임

○ 신고금액 및 도착금액은 **3월 31일까지의 실적 잠정치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일부 수치는 추후 변경이 가능**함

○ 산업부의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은 **매분기마다 발표**되며, **상반기**(2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자료는 **‘18년 7월 중순 발표예정**

2018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2018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최근 상승추세 지속

- 신고기준 49.3억 달러로 (+28.1%) 큰 폭의 증가세 -
- 도착기준 29.1억 달러로 (△2.9%) 보합세 -

Ⅰ. 종합

1 **(실적)** 2018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는 신고기준으로 전년동기대비 **28.1% 증가한 49.3억 달러**로 **1분기 기준 역대 두 번째 실적을** 기록하면서, 최근 **외국인투자의 상승 전환국면(모멘텀)**을 유지함

* 기존 1분기 최대실적 : '14.1Q, 50.6억 달러

【 연도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단위 : 억 달러)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5년평균	2018
1분기	신고	33.9	50.6	35.5	42.4	38.5	38.1	49.3
	도착	15.0	37.7	32.2	20.9	29.9	27.1	29.1
전체	신고	145.5	190.0	209.1	213.0	229.4	197.4	-
	도착	98.9	121.5	165.5	106.1	133.3	125.1	-

○ 도착기준은 전년동기대비 **2.9% 감소한 29.1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5년('13~'17년) **평균인 27.1억 달러를 상회**하는 등 **안정세**를 보임.

2 **(평가)** 1분기 투자증가는 지난해에 이어 상승세가 이어진 점이 긍정적이며, 외국인투자가들은 **여전히 한국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인식하고 있음

○ **(지역별) 유럽연합(EU)·미국·중국** 등 주요국은 증가했으나, **일본**은 소폭 감소세. **한·중관계 정상화**가 중국발 투자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 **(업종별) 가치사슬(밸류체인) 형성형 합작투자**로 제조업은 큰 폭(+58.6%) 증가세, **디지털 경제 트렌드 확산**의 영향으로 서비스업도 견조한(+18.6%) 증가세

○ **(유형별)** 그린필드형은 **전방산업 수요증가**에 대응한 **증설투자** 영향(+16.2%), **연구개발(M&A)형**은 **대형 딜(Deal) 성사**에 따라 큰 증가세(+73.8%)를 보임

Ⅱ. 세부동향

1. 국가별 특징 (신고기준, 전년동기대비)

❶ 유럽연합(EU)은 작년 4분기 이후 꾸준히 증가해 1분기 기준 역대 2번째 실적 기록
❷ 중국은 한·중 양국간 투자협력 확대로 1분기 기준 역대 최대실적 달성
❸ 미국은 정보통신·금융보험 등 4차산업혁명 관련 서비스업 투자가 상승세 견인
❹ 일본은 국내복귀(리쇼어링)에 따른 대형투자 감소로 제조업은 감소했으나, 서비스업은 증가

1 유럽연합(EU)

◈ 신고기준은 전년대비 **114.0% 증가한 18.7억 달러***를 기록 (비중 37.9%), 도착기준은 **2.9% 감소**한 **11.0억 달러**를 기록

* ① **운송용 기계**(5.9억 달러, +542.0%), ② **전기·전자**(4.6억 달러, +475.6%), ③ **금융·보험**(4.5억 달러, +51.1%)

○ **(주요특징) 4차 산업혁명의** 핵심산업인 **반도체소재 및 자동차 부품** 기업에 **대규모의**(1억 달러↑) **지분투자가** 증가세를 견인

- **(밸류체인 완성)** 한국의 **세계적 대기업**(완제품)과의 협력을 위해 소재·부품 투자가 증가했으며, 이에 한국 **주력산업 가치사슬**(밸류체인)* 완성에 기여

  * **(외국)** 소재·부품 생산기업에 투자 또는 합작 → **(한국)** 완제품 생산 후 해외 수출

- **(금융투자) 영국·네덜란드** 등 금융허브 국가를 통한 사모펀드(PEF)와 **유럽연합(EU) 지역을 경유한 인수합병(M&A)투자**가 꾸준히 증가

○ **(업종별)** 제조업은 **10.7억 달러**(+169.9%), 서비스업은 **8.0억 달러**(+87.3%)을 기록

- **(제조업) 전기·전자**(4.6억 달러, +475.6%), **운송용기계**(5.9억 달러, +542%) 중심으로 큰 증가세 시현,

  * 반도체 소재 및 자율주행차 관련 부품 생산을 위한 대형 투자건의 영향
  - 반도체 웨이퍼(A사, 4.0억 달러), 자율차 부품(B사, 5.4억 달러)

- **(서비스업) 숙박·음식**(1.7억 달러, +83,495%) **금융·보험**(4.5억 달러, +51.1%), 연구개발(R&D)과 **전문·과학기술**(0.8억 달러, +1,746%)을 중심으로 호조세를 보임

※ 유럽연합(EU)발 **외국인직접투자(FDI) 주요사례**

▲ **(반도체웨이퍼)** 스마트폰·정보기술(IT)기기·인공지능(AI) 등 4차산업혁명 관련 반도체 수요(메모리)의 급증에 따라 국내 반도체 대기업에 부품공급을 위한 공장증설 투자

▲ **(자율주행차 부품개발)** 글로벌 자동차부품기업 계열사인 A사가 국내 중견 자동차 부품기업과 제휴를 통해 자율주행차 관련 솔루션 및 부품개발을 하기위한 투자

2 중국

◈ 신고기준 **541.5%** 증가한 **10.5억 달러** (비중 21.3%), 도착기준 **47.8%** 감소한 0.22억 달러

* ① **부동산**(8.0억 달러, +10,691%), ② **전기·전자**(1.1억 달러, +3,649.9%), ③ **기계장비·의료정밀**(0.7억 달러, +1,609.4%)

○ **(주요특징) 한·중 정상회담 계기**('17.12월) 양국 간 경제교류 회복세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큰 폭**(+541.5%)의 증가세를 시현

* '17년말 이후 3차례 개최한 **중국계 전문가·외투기업 간담회를 통해 확인**되었던 중국의 대한(對韓)투자 수요가 **실제투자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됨

- **(경쟁력 확보)** 국내 주력산업인 **반도체·전자부품**과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분야***에 투자를 집중함

* 중국은 **선진기술(R&D), 인프라, 신재생에너지 분야** 해외투자를 적극 장려

- **(투자협력증대)** 작년 대통령 순방이후 **한·중 양국 간 투자협력** 확대로 **제3국 공동진출*** 등이 가시화 되면서, 이번 1분기에 투자가 급증

○ **(업종별)** 제조업은 전년동기대비 **232.0% 증가한 1.84억 달러**, 서비스업은 **745.9% 증가한 8.2억 달러**를 기록

- **(제조업) 기계·장비**(0.71억 달러, +1,609%), **전기·전자**(1.1억 달러, +3,650%)는 증가세, **화공**(1백만 달러, △87.1%)은 감소세

- **(서비스업) 부동산**(8.0억불, +10,691%), **전기·가스**(발전업)(0.45억불, +318%)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임

※ 중국 발(發) 외국인직접투자(FDI) 주요사례

▲ **(건설기계)** 굴착기·불도저용 캐터필러를 생산하는 중국기업이 한국내 건설장비 기업과의 공동연구 및 조인트벤처(JV) 설립을 위한 신규투자

▲ **(태양광 패널)** 태양광 분야에서 일본기업과 협력을 진행하고 있는 중국기업이 한국기업과 제휴를 통해 동북아시아 시장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신규투자

3 미국

◈ 신고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증가해 전년대비 **102.3%** 증가한 **7.4억불**을 기록 (비중 15.0%), 도착도 **297.7%** 증가한 **7.8억불**을 기록

* ① **정보통신**(5.1억 달러, +1,661%), ② **금융·보험**(2.0억 달러, +726.2%), ③ **부동산**(0.1억 달러, △80.0%)

○ **(주요특징) 전자상거래, 클라우드** 등 **정보기술(IT)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제휴** 투자가 활발함

- **(디지털 경제) 정보기술(IT) 서비스업**(전자상거래, 클라우드) 관련 플랫폼 구축 투자가 꾸준히 유입되어, 한국에서 **국제 전략수립을 위한 시험대**로 활용

- **(바이오헬스)** 임상실험에 적합한 **국내 의료환경, 우수한 의료인력** 등을 활용하기 위한 **바이오**(제약, R&D)분야 투자가 꾸준히 증가

○ **(업종별)** 제조업은 전년대비 **97.5% 감소한 6백만 달러**를 기록, 서비스업은 **448.5%** 증가한 **7.33억 달러**를 기록

- **(제조업)** '17년 1분기 강세를 보인 **자동차와 금속가공 분야 투자***가 올해는 감소해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크나, **진행 중인 프로젝트** 고려 시 **2분기부터는 점차 증가할 전망**

* '17.1Q 미국 완성차 업체의 대형투자(1.3억 달러), 금속가공공장 증설투자(0.66억 달러)

- **(서비스업) 정보통신**(5.1억 달러, +1,661%), **금융·보험**(2.0억 달러, +726.2%)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였고, **도·소매**(7백만 달러, △70%) 분야는 감소세

※ 미국발(發) 외국인직접투자(FDI) 주요사례

▲ **(바이오의약품)** 한국 제약산업 역량을 활용하기 위해 백혈병·골다공증 치료제를 생산하는 미국 바이오의약품 기업의 증액투자

▲ **(클라우드)** 미국의 세계적인 정보기술(IT)기업 A사가 한국의 우수한 정보기술(IT)기반과 인력을 활용해 국내외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본격진출을 위한 증액투자

4 일본

◈ 신고기준 **9.6%** 감소한 **3.7억불** (비중 7.5%), 도착기준 **26.9% 증가**한 **3.12억불**

* ① **정보통신**(1.5억 달러, +7,081.5%), ② **금융·보험**(0.8억 달러, +414.4%), ③ **도·소매**(0.4억 달러, △43.8%)

○ **(주요특징) 화공·전기전자** 등 **전통적 대한(對韓) 투자분야**는 약세를 보였으나, **소비재**(생활용품), **정보통신**(IT플랫폼, 핀테크), **금융** 분야 투자로 다변화 추세

- **(패러다임 변화)** 중화학, 반도체 등 한국 주력산업 가치사슬(**밸류체인**) **편입형** 투자가 정보기술(**IT플랫폼**), **핀테크, 전자상거래** 등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화 중

  * **업종별 비중**(신고, 제조 : 서비스, %) : **(누적)** 53 : 46 → **('17)** 54 : 47 → **('18.1Q)** 19 : 81

- **(감소원인)** 주원인은 **일본**의 **제조업 리쇼어링 정책**(일본재흥전략)에 따른 제조업의 **대형투자**가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

○ **(업종별)** 제조업은 전년대비 **52.4% 감소한 0.74억 달러**를 기록, 서비스업은 전년대비 **16.2% 증가**한 **2.93억 달러**를 기록

- **(제조업) 화공**(0.11억 달러, △3.0%)은 보합세, **전기·전자**(3백만 달러, △95.9%), **기타제조**(0.3억 달러, △50.9%)는 감소세

- **(서비스업) 정보통신**(1.45억 달러, +7,082%), **금융·보험**(0.82억 달러, +414%)은 **호조세**를 보였으며, **도·소매**(0.38억 달러, △43.8%)는 감소세

※ 일본발(發) 외국인직접투자(FDI) 주요사례

▲ **(소비재(생활용품))** 전세계에 제조시설을 보유한 일본의 글로벌 생활용품 제조기업이 소형가전·생활용품의 온·오프라인 시장 확대를 위한 제조시설 증액투자

▲ **(IT 플랫폼, 핀테크)** 정보기술(IT) 플랫폼과 기업소유 지적재산소유권(IP)을 결합해 모바일 게임을 개발하기 위한 투자와 전자결제(온라인송금) 분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규 투자

2. 업종별 특징 (신고기준, 전년동기대비)

❶ 제조업은 국내기업과 해외기업간 합작투자 증가로 인해 4차산업혁명 관련 운송용기계, 전기·전자 투자는 증가했으나, 전통적인 화공·금속 투자는 감소

❷ 서비스업은 국내 우수한 ICT 인프라 및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통신, 연구개발 및 전문·과학기술분야가 증가 했으나, 최근 국내소비심리 하락에 따른 도·소매(유통) 분야 투자는 감소

1 제조업

◈ 신고기준 **58.6% 증가한 15.4억 달러**, 도착기준 **14.6% 증가**한 **5.7억 달러**

* ① **운송용기계**(7.3억 달러, +222.6%), ② **전기·전자**(5.9억 달러, +200.9%), ③ **기계장비·의료정밀**(1.0억 달러, +89.0%)

○ **(주요특징) 한국의** 경쟁력 있는 국내 대기업과 국제 가치사슬(**글로벌 밸류체인: GVC**) **형성**을 위한 **합작투자** 증가가 1분기 증가세를 견인

* 전기전자(반도체), 운송용기계(車부품), 정밀기계 분야에서 **GVC을 완성**하는 투자 활발

- **(국내 우수 연관산업 투자)** 국내 대기업과 협력모델 구축과 **전·후방 연관산업**(소재·부품) 투자를 통해 **"글로벌 밸류체인 완성형"** 투자가 증가

* 예) ① **2차전지** : 배터리(국내) + 소재(외국기업), ② **자율자동차 부품** : 설계·솔루션(외국) + 부품개발·생산(국내) → 해외시장 공동진출, 협력적 밸류체인 형성

- **(신산업 시장 선점형 투자) 항공·드론, 바이오·제약** 등 한국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신산업분야 투자**가 점차 증가 중

* 공동R&D → 판매법인 → 현지 공장(사업장) 설립의 외투 프로세스를 동시에 진행

○ **(증가업종) 운송용기계**(2.2 → 7.3억 달러, +222.6%), **전기·전자**(1.96 → 5.9억 달러, +200.9%), **기계·장비**(0.51 → 0.96억 달러, +89.0%)

○ **(감소업종) 화공**(2.1 → 0.4억 달러, △81.3%), **금속·금속가공**(1.6 → 0.2억 달러, △86.4%)

※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FDI) 주요사례

▲ **(자율차부품)** 미국의 글로벌 자동차 부품기업에서 분사된 **자율차전문 기업이 전장부품 관련** 경쟁력 있는 **국내 중견 소재·부품기업**에 신규투자

▲ **(무인항공기)** 이스라엘의 국영 연구소와 한국의 탄소섬유 전문기업간 합의를 통해 **차세대 수직이착륙 무인항공기** 공동연구 및 제품개발을 위한 합작사를 설립

▲ **(반도체웨이퍼)**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급증하는 반도체 수요**에 대응하여 반도체 소재(웨이퍼)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대규모 투자

2 서비스업

◈ 신고기준 **18.6% 증가**한 **33.4억 달러**, 도착기준 **4.8% 감소**한 **23.2억달러**

* ① **부동산**(10.3억불, +13.6%), ② **정보통신**(8.9억불, 1,564.1%), ③ **금융·보험**(8.3억불, △35.4%)

○ **(주요특징) 디지털 경제** 트렌드 확산에 따라 정보기술(IT) **플랫폼·클라우드·전자상거래·핀테크** 분야 등 다양한 신산업 서비스 투자가 집중

- **(정보기술(IT)서비스)** 오프라인을 위한 온라인(O4O: Online for Offline) 서비스를 위한 **전자상거래** 투자, **빅데이터 데이터센터 설립을 위한 증액**투자, 지적재산권(IP)을 활용한 소프트웨어(SW) 개발 등 **다양한 정보기술(IT) 서비스 제공**을 위한 투자가 증가

  * **우수한 정보기술(IT)·모바일 환경**과 **까다로운 소비자**를 바탕으로 국내 대형 IT서비스업체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해 민간·공공시장을 함께 공략하는 경우도 발생

- **(부동산 투자)** 인근 아시아국가 대비 **높은 임대 수익률***, 우수한 **치안과 삶의 질, 안정적인 경제환경**에 힘입어 부동산 투자가 증가

  * 상업용 오피스 수익률 : 도쿄(3.2%), 싱가포르(3.3%), 홍콩(3.0%), **서울(약5%)** (FT)

- **(금융·핀테크)** 사모펀드(PEF) 중심의 **집합투자업 투자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으며, **핀테크 관련 소프트웨어(SW)개발** 및 **플랫폼 구축**을 위한 투자 증가

○ **(증가업종) 정보통신**(0.5 → 8.9억 달러, +1,564%), **연구개발·전문·과학기술**(0.5 → 1.2억 달러, +155.7%), **부동산**(9.0 → 10.3억 달러, +13.6%)

○ **(감소업종) 금융·보험**(12.8 → 8.3억 달러, △35.4%), **도소매**(2.4 → 1.8억 달러, △25.7%)

※ 서비스업 외국인 직접투자(FDI) 주요사례

▲ **(전자상거래)** 지속적으로 성장성이 기대되는 전자상거래 시장의 전망과 역(易)직구 등 소비흐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정보기술(IT)기업 및 펀드로부터 투자유치

▲ **(클라우드)** 우수한 정보통신기술(ICT)·클라우드 인프라, 정부의 클라우드 산업 육성정책으로 국내 민간·공공 클라우드 시장 진출용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한 증액투자

▲ **(스타트업 펀드)** 4차산업혁명 관련 분야 육성을 위해 일본 최대 정보기술(IT) 기업의 국내 중소벤처기업 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로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로봇 등 분야에 선제적 투자

3. 유형별 특징 (신고기준, 전년동기대비)

❶ 그린필드형 투자는 신고기준으로 16.2% 증가한 35.6억 달러로 1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 기록, 도착기준은 12.0% 증가한 20.6억 달러

❷ 인수합병(M&A)형 투자는 대형 인수합병(M&A) 성사와 합작투자 증가로 신고기준 73.8% 증가한 13.8억 달러, 도착기준은 26.6% 감소한 8.5억 달러

1 그린필드형 투자

○ **(주요특징) 전방산업 수요증가에 대응**해 **생산량 제고**를 위한 **공장 증설 투자**와 **정보기술(IT)서비스 인프라 구축**을 통한 **시장선점형 투자**가 집중

* 한국을 **제3국 수출을 위한 생산거점**으로 활용하고, **밸류체인 형성**형 투자가 증가했고, **지자체의 전략육성업종**(콜드체인, 태양광 등)에 대한 투자가 지속됨

○ **(업종별)** 그린필드형 **제조업 증가**(+21.2%), **서비스업 증가**(+13.1%)

* ① 그린필드형·제조 : 8.2억 달러(+21.2%), ② 그린필드형·서비스 : 26.8억 달러(+13.1%)

※ 그린필드형 외국인직접투자(FDI) 주요사례

▲ **(2차전지+밸류체인)** 전기차·ESS 등 급증하는 전방산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차전지 소재(양극재)를 생산하는 기업의 공장 증설 투자

▲ **(반려견·묘 사료생산)** 세계1위 글로벌 식품·음료 제조기업이 급증하는 한국내 동물사료 시장 진출과 아시아 시장 수출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공장건립 투자

2 인수합병(M&A)형 투자

○ **(주요특징) 제조업 중심**으로 **대형**(1억 달러↑) **인수합병(M&A) 딜**(Deal)이 **여러 건 성사**되었고,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한 **지분투자***도 활발

* 수익성이 감소하는 **사업부 매각(M&A)을 통해 경영효율화**를 도모하고 핵심사업부 지분 매각을 통해 **모회사 재무건전성을 개선하는 투자**도 진행되었음

○ **(업종별)** 인수합병(M&A)형 **제조업 증가**(+146.3%), **서비스업 증가**(+46.9%)

* ① M&A형·제조 : 7.1억불(+146.3%), ② M&A형·서비스 : 6.6억불(+46.9%)

※ 인수합병(M&A)형 외국인직접투자(FDI) 주요사례

▲ **(중고차 사업부 매각)** 호주 최대규모 온라인 자동차 유통기업이 한국의 중고차 관련 기업의 지분을 완전 매수, 향후 동북아 시장 사업영역 확장을 위한 투자

▲ **(재무구조 개선 지분투자)** 핵심사업부의 지분을 글로벌 사모펀드에 매각함으로써 재무안정성을 개선하고 추가 해외사업 진출과 유통망 확보를 위한 경쟁력을 확보

Ⅲ. 향후 전망 및 대응 계획

1. 향후 전망

□ **(국제 동향)**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18.3.21)에 따른 **유동성 저하**(긴축 통화 정책) 가능성, **국제 무역전쟁 본격화** 등으로 투자가 위축될 여건

* 다만, UNCTAD는 연초('18.1.22) 2018년 국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17년의 회복세에 이어 **1.85조 달러**로 완만한 증가(moderate rise)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그러나, **선진국**(미·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세계경기 회복세가 뚜렷**하며, **4차산업혁명 관련 투자**는 성장성이 크므로 꾸준히 증대될 전망

□ **(우리 외국인직접투자(FDI) 전망)** '18. 1분기 외투 규모와 유치가능 프로젝트를(정부, 인베스트코리아(IK), 지자체 등) 고려 시 **상승기조 추세는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 **미-중간 무역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국제 **교역규모 감소**우려,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국제 **인수합병(M&A)시장 위축** 등의 요인이 상존

- 그러나,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한-중간 경제 교류 회복세** 및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타결가능성** 등 호재요인도 존재

2. 대응 계획

□ 정부는 **1분기에 감소세**를 보인 지역(일본 등)을 중심으로 **고위급(장차관) 투자설명회(IR)**을 통해 투자가의 우려를 불식하는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

□ 이외에도 정부는 **1분기의 외국인투자 상승추세**를 지속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가 및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소통강화 활동을 지속하고,

○ **각 국의 투자정책**과 **외국인투자가의 동향**을 꾸준히 모니터링 하여 **4년 연속 외국인투자 2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임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 송상현 사무관(☎ 044-203-408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